

내일 '미니 수능'... 입실 불가자 온라인 응시 지원

9월 수능 모의평가

2099개 고교·428개 학원서 진행
전체 시험장 철저한 방역 관리
졸업생 위주 전체 응시지원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는 16일 치러진다. 자가격리자와 응시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온라인 시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9월 수능 모의평가가 16일 전국 2099개 고교와 428개 학원에서 치러진다고 14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올해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다. 출제 기관은 수험생들의 실력을 파악해 난이도를 조정하고, 수험생은 자신의 위치를 진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7347명이다. 재학생 40만9287명과 졸업생 등 수험생 7만8060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4061명 증가했으나 재학생은 7242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1303명 증가했다.



지난 6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의평가 치르는 수험생들

/뉴스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2월 3일 실시될 올해 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같다.

시험 시작시간은 ▲1교시 국어 오전 08시 40분 ▲2교시 수학 오전 10시 30분 ▲3교시 영어 오후 1시 10분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오후 2시 50분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오후 5시다.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탐구 영역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정답 이의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며 28일까지 심사를 거쳐 정답을 확정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수험생들의 올해 수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성적 통지일을 당

초 10월 16일에서 10월 14일로 2일 앞당겼다. 평가원 관계자는 "채점 시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기 때문에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예비 표시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험도 치러진다.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6월 모의평가와 같이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

영한다. 해당 홈페이지는 17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중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수험생 157명에게는 점자문제지, 음성평가자료, 점자정보단말기 등 편의가 제공된다.

학교, 학원 등 전체 시험장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시험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시에도 개인간 거리 두기(최소 1미터 이상)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실 당 50명 이하의 인원이 응시하는 경우 시험 시행이 가능하다.

시험실 당 50명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학원은 인근 시설 섭외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장을 설치한 428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문답지를 수령받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온라인 강의 모습

/세종대

세종대

2학기 반도체 직무교육 진행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은 약 3개월에 걸쳐 '2020년도 2학기 반도체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주요 1차 반도체 밴더 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25시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비대면 라이브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반도체 직무 분석 ▲반도체 소자 및 제품의 이해 ▲반도체 8대 공정의 이해 ▲Q&A 등으로 구성된다.

/이현진 기자

韓 토플성적, 세계평균 '간당'

시원스쿨 세계 토플 성적자료 분석
171개국 중 공동 87위, 전년비 하락

2019년 한국인의 토플(TOEFL)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의 총점 순위(공동 87위)와 말하기 영역 순위(공동 132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원스쿨의 시험영어 인강 브랜드 시원스쿨랩(LAB)이 미국교육평가원(ETS)이 발표한 '2019년 전 세계 토플 성적 통계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토플(iBT, Internet-Based Test) 성적은 120점 만점에 83점으로 171개국 중 공동 87위로, 2018년

성적(84점, 75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인의 토플 말하기 영역 성적은 30점 만점에 20점으로, 북한, 중국, 대만과 함께 공동 132위에 올랐다. 2018년에는 20점으로 122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전년도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하락했다.

한국인의 영역별 성적은 ▲읽기 22점 ▲듣기 21점 ▲말하기 20점 ▲쓰기 20점이다. 전 세계 응시자의 영역별 평균 점수인 ▲읽기 21.2점 ▲듣기 20.9점 ▲말하기 20.6점 ▲쓰기 20.5점과 비교할 때 읽기 영역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반면, 말하기와 쓰기는 낮다.

/이현진 기자



학원 어려움 듣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날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학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날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학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손진영 기자 son@

상반기 구직자 5명 중 4명은 취업실패

코로나 직격... 모집 줄고 경쟁 심화

상반기 구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주범은 역시 코로나19였다. 코로나 여파로 채용취소 및 연기가 이어지고, 모집도 줄어들어 경쟁을 심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표 서미영을 올해 구직경험자 6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상반기 구직 성적표' 조사결과다.

먼저 상반기 구직자가 지원한 기업(중복선택)은 ▲중견기업(25.8%) ▲중소기업(24.1%) ▲공공기관(23.1%) ▲대기업(21.9%)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가장 적은 기업은 '스타트업'(5.2%)이다.

지원결과 상반기 취업에 '합격'한 비율은 21.2%로 확인됐다. 반대로 '불합격'은 54.0%로 합격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나머지 24.8%는 '결과 대기중'이었다. 상반기 구직활동을 했지만 5

명 중 4명은 현재까지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합격 이유(중복선택) 역시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활린 흔적이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모집기업이 줄어 경쟁률이 심화됐음'(22.2%) 외에도 ▲코로나로 모집직무 및 인원이 줄어들(17.1%) ▲코로나 여파로 자격증 응시도 중단되며 애로사항 겪음(10.2%) 등 피해가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로 모집이 취소, 연기되며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채용이 중단됨'(11.2%)을 통해서도 구직자들이 느꼈을 상실감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렇듯 '코로나19 탓으로 불합격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60.7%에 달했다. 이 외 불합격 요인으로는 ▲서류 준비 미흡(13.8%) ▲면접 응시결과 미흡(13.9%) ▲필기 응시결과 미흡(8.6%) 등이라고 자가진단을 내렸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온라인 코딩 교실 참여 학생 모집

3가지 코딩 테마 마련, 선택 신청

인천대 무한상상실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코딩 교실에 참여할 초등학생들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온라인 코딩교실은 ▲스크래치 3.0코딩 ▲아두이노 애플블록 코딩 ▲마이크로비트 코딩 등 3가지 서로 다른 코딩 테마로 마련됐다.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대 무한상상실은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든 코딩을 접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천대 무한상상실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코딩 교실에 참여할 초등학생들을 모집한다.

/인천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온라인 코딩 수업도 진행 중이다. 성인 강좌 테마는 '앱인벤터 코딩'과 '아두이노 코딩'이 있다. 지난 10일부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미술·디자인 공모전 개최

덕성여대대학교가 미술·디자인 분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전을 마련했다.

덕성여대 Art & Design대학은 '2020 미술·디자인 교수평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술·디자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 마지막 실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수목담채화 ▲색채소묘 ▲기초디자인 ▲사고의전환 등 덕성여대 예체능전형 미술실기교과 과목과 동일하다. 공모전에는 전국 고등학교 남녀 재학생과 졸업생(검정고시생 포함)이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 전원에게 덕성여대 교수의 심사평이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스타트업 CEO 과정 모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대 3억원'의 투자까지 진행되는 '스타트업 CEO 과정'이 열린다.

동국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엑셀러레이터이자 투자전문기업인 씨엔티테크와 손잡고 오는 29일까지 '스타트업 CEO 과정 1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스타트업 CEO 과정 with CNTTECH'은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 내에서 ▲창업 및 투자 교육 ▲네트워킹 ▲투자까지 '토탈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